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텍스트의 문장 종결부 분석: 스카즈(skaz) 내러티브 사례

조의연 · 조성은

(동국대_서울)

1. 들어가기

샐린저(J. Salinger)의 미국소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은 일인칭 화자, 주인공 홀든(Holden)이 일상적 어투로 말하는 방식의 소설로 스카즈(skaz) 서술 방식의 대표적 소설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Fludernik 1993, Jahn 2005, Lodge 1992). 스카즈 서술 방식은 구술 서술(oral narration)의 한 방식이지만, 면대면(face-to-face)의 일반적인 대화(conversation) 방식과 달리 소설의 등장인물이 말하는 사람(teller)으로 나타나 가상의 청자에게 친밀하게 이야기 하는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원천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예 1)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the first thing you'll probably want to know is where I was born, and what my lousy childhood was like, and how my parents were occupied and all before they had me, and all that David Copperfield kind of crap, but I don't feel going into it,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위에서 2인칭 대명사 'you'는 소설 속의 특정 인물이 아닌 가상의 청자이며 주인공인 홀든이 1인칭 화자 'I'이다. 1인칭 화자인 홀든은 자기의 이야기를 가상의 청자에게 일상적으로 말하는 어투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입말 이야기의 종결어미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 및 장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장경현 2010), 위 소설의 경우, 번역자가 가상의 청자를 누구로 그리고 이 청자와 주인공 화자와의 친밀성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인공 홀든의 어투가 결정되어 한국어 번역소설의 종결어미 문체가 결정된다. 그런데 위 소설의 번역본들을 보면, 홀든의 서술 종결어미가 달리 쓰이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번역자들이 위의 일인칭 화자 'I'와 가상의 청자 'you'에 대한 관계를 달리 설정하고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덕형 역본(TT1)에서는 '-다' 종결체를, 윤용성 역본(TT2)은 '-어' '-는데' 등의 '해' 반말체 그리고 김옥동·염경숙 역본(TT3)에서는 '-니다'와 '-어요'의 '해요' 체가 기본 서술어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앞의 (예 1)의 원천 텍스트 번역 일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예 2)

TT1: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시시결령한 이야기 말이다. (이덕형)

TT2: 말하자면,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시시결령한 것부터 들으려고 할지 모르겠구나. (윤용성)

TT3: 그러니까 온통 시시콜콜하게 내력이나 캐는 데이비드 코퍼필드식 얘기를 말이지요. (김옥동·염경숙)

TT1의 '-다' 종결부는 기본적으로 글말체이며 화자 지향적 발화에서 쓰인다(장경현 2010, 이종희 2004). 한편 TT2의 반말체는 청자 지향적 발화 표현으로 구

술성이 강하다. TT3의 종결형들은 ‘-다’ 종결형 보다는 화자 지향성이 약하지만 TT2에서 쓰인 ‘해’ 체의 반말형들 보다는 청자 지향성이 약하다. 한국어 대우법 격식 등급에서 TT2는 ‘해’ 체로 TT3의 ‘해요’ 체에 비해 격식성이 낮아 화자가 청자와 동년배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 TT3의 ‘해요’ 체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의 스카즈 서술성에 나타난 1인칭 화자 홀든과 그의 가상 청자를 고려한 주인공 홀든의 이야기 방식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발화의 종결부는 ‘문자 발화’가 아닌 비격식성 ‘음성 발화’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번역본 중에서 운용성의 TT2가 이에 가장 부합됨을 보일 것이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스카즈 내러티브로서 보이는 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2005: 제 1부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평가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번역본들”로 평가한 번역본 3종을 대상으로 이들의 종결어미 쓰임 형태를 분석할 것이며 4장은 결론이다.

2. 스카즈 내러티브: *The Catcher in the Rye*

러시아어로 ‘말하다(to tell)’를 의미하는 스카즈(skaz)는 문학 내러티브(narrative)의 한 형식으로 1920년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¹⁾ 비록 글말 텍스트인 문학 서술성의 한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범주적으로는 구술 내러티브(oral narrative)의 한 방식이다(Fludemik 1993). 스카즈 내러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1인칭 화자는 등장인물이며 이야기 속에 가상의 청자 ‘you’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둘째는 이러한 ‘유사 구술 담화(pseudo-oral discourse)’가 글말 텍스트(written text)로 구현되기 때문에 입말의 구술적 특징이 문자로 전환되어 문학 텍스트 내에

1) Bakhtin (1984)에서 인용된 러시아 형식주의자 아이켄바움(Boris Eikhenbaum 1918)에 따르면, “구어 형태의 서술을 지향하는 문학”으로 내러티브의 한 장르로 분류되는 스카즈는 “활자화된 단어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언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야기 방식이다.”

발화되듯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술적 발화 특징은 오래된 방언, 비격식성, 친근함, 학교 교육 결여, 문화 차이 등 규범에서 일탈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스카즈 내러티브의 이러한 특징이 *The Catcher in the Rye*에 어떻게 표상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목표 텍스트의 종결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스카즈 내러티브의 구어체적 특성은 1인칭 화자가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가상의 2인칭 나레이터(narratee) 또는 청자인데, 비록 가상의 청자이지만, 독자들에게 이 청자는 대화 참여자로서 텍스트 내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지된다(Mackenzie 1996:6). 이와 같이 내러티브 소설 속 나레이터가 1인칭 화자이고 청자는 2인칭 대명사로 표현될 때 텍스트 밖의 실제 독자(real reader)는 마치 나레이터의 이야기 상대가 자신인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텍스트 밖의 독자에게 이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핵심적 요소는 2인칭 나레이터인 ‘you’인데, 가상의 청자 ‘you’는 1인칭 화자인 ‘I’의 대화상대로 등장하며 이때의 ‘you’는 텍스트 내의 어떤 인물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입말 구술 형식은 스카즈 내러티브의 독자로 하여금 나레이터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닌 ‘듣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2인칭 대명사를 이용한 가상 청자의 등장은 텍스트 세계 안으로 독자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저자의 강한 의도의 표출이라 볼 수 있는데, 카칸데스(Kacandes 1993; Walker 2000에서 재인용)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초대”라 하며 저자의 독자를 향한 강한 의도적 행위로 본다.

이와 같이 독자를 텍스트 세계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셸린저의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에서 텍스트 속 가상의 청자, ‘you’의 사용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가상의 청자가 도입되는 방식을 보기로 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소설의 첫 머리에 주인공 화자 홀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예 3)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the first thing you’ll probably want to know is ……

소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화자인 홀든은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이라고 말하며 동사 ‘to hear’를 사용하여 스토리텔링의 의사소통 속으로 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독자를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주체’로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예시문들에서 “I tell you” 그리고 “I forgot to tell you”와 같은 홀든의 발화는 ‘말하다’ 동사 ‘tell’을 사용하여 구술성(orality)을 높이고 있다.

(예 4)

I'll just tell you about this madman stuff that happened to me around last Christmas just before I got pretty run-down and had to come out here and take it easy.

(예 5)

I forgot to tell you about that. They kicked me out.

홀든의 이러한 구술적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의 가상의 청자와 홀든 사이의 이야기를 엿듣는 삼자가 아니라, 독자는 이미 홀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로 초대되어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독자는 청자로서 홀든의 이야기를 듣는 주체로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명령문 형태의 구문 형식을 사용한 서술자의 발화는 청자에게 요청(request) 또는 명령(order)의 직접적인 화행(speech act)을 수행하여 청자에게 화행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래에 인용된 홀든의 발화는 이에 해당된다.

(예 6)

If there's one thing I hate, it's the movies. Don't even mention them to me.

홀든은 청자에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화라고 말하며 청자에게 영화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의 화행은 대화체에서 구체적 청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잠재적 청자인 독자는 홀든의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는 초대를 받는 구술적 효과가 발생한다.

*The Catcher in the Rye*의 이러한 스카즈 내러티브의 특성은 한국어 번역에

서 번역자의 종결어미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스토리텔링의 주인공 화자 홀든은 17세의 고등학교 중퇴 남학생이며 홀든이 친밀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잠재적 청자는 동년배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다(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337). 한국어 종결어미는 듣는 이와 관계에 따라 말하는 이의 태도 및 의향, 그리고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기 때문에(이종희 2004:3-4), 우리는 다음장에서 주인공 홀든이 동년배의 잠재적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종결부는 비격식 ‘해’ 체의 반말체이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3. 번역 텍스트 문장 종결부 문체 분석

우리는 위에 예시된 3종의 번역본에²⁾ 나타난 문장 종결부의 문체적 특성을 논의하고 운용성의 번역 텍스트에서 쓰인 ‘해’ 체의 반말체 문장 종결부가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인 『호밀밭의 파수꾼』 서술자의 음성적 구술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체임을 주장할 것이다. 3.1은 한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특성을 ‘-다’ 종결체, ‘-습니다’, 그리고 ‘해’ 체의 반말체 문장 종결어미 ‘-어’ ‘-요’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3.2는 각 번역본에 나타난 종결부의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3.1 문장 종결부의 문체 특성

장경현(2010)에³⁾ 따르면 문체 선택에 영향을 주는 화자와 청자의 요소는 텍스트 외적 요소로 공간적인 물리적 요소와 비공간적인 심리적 요소로 구분된다. 화자와 청자가 물리적 또는 맥락적으로 단절되었느냐 아니면 연계되었느냐에 따라 ‘단절성’과 ‘연계성’으로 구분한다. 한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본 화자의 발화 행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향성을 갖는다. 잠재적 청자를 대상으로

2) 원문으로는 Little, Brown and Company의 1991년 출판본을 참고하였으며, 번역본으로는 문예출판사의 이덕형 역본과 문학사상사의 운용성 역본, 그리고 현암사의 김옥동·염경숙 역본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의 세 번역본은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에서 “신뢰할만한 번역(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225)”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3) 종결어미의 문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장경현(2010)의 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하거나 구체적 청자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다를 수 있겠으나 화자의 발화 행위는 기본적으로 화자 중심적이거나 청자 중심적일 수 있다.

논문이나 신문과 같은 가치중립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자의 발화는 청자의 연령이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신문이나 논문의 기본 종결형 어미인 ‘-다’체는 화자 중심적이다. 이종희(2004: 12)는 ‘-다’ 종결체는 “듣는이를 상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글말에서 사용되는 종결어미”라고 한다. 아래의 발췌문은 각각 학술서와 신문의 일부이다. 종결부 ‘-있다’ ‘-이다’ ‘-다’는 모두 ‘-다’ 종결체의 대표적인 종결형들로 알려져 있다(장경현 2010: 74).

(예 7)

텍스트 장르에 따라 그 장르 내적으로 정형화된 관습이 있다. 이러한 관습은 문체로 구현되며 그 문체는 장르 안에서 무표적이다. 관습에서 벗어난 문체는 유표적으로 인식된다. (장경현,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예 8)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3년 7월 24일⁴⁾)

의사소통 현장에 청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청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면대면 대화 형식과 청자가 일정 시간 개입을 할 수 없는 학술 세미나와 같은 의사소통 형식은 차이를 가진다. 전자가 청자 중심적이라면 후자는 여전히 단절적 상황과 같이 화자 중심적 단절성의 특징을 반영하는 종결어미가 사용될 수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의 일부이다. 기자회견은 현장성에서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자 지향성이 있으나 동시에 화자가 잠재적 청자라고 여기는 기

4) 듣는 이를 특정하게 상정하지 않는 ‘-다’ 종결체 어미는 일인칭 번역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내가 더 어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웠던 시절, 아버지 나에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후 줄곧 마음속에 되뇌어왔다 (정현종 옮김, 위대한 개츠비).

자회견의 청자가 물리적으로 화자의 발화 공간에 존재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아래의 기사 회견에서는 ‘-니니다’ 종결체가 쓰이고 있다.

(예 9)

저는 규정을 지켰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힘들게 노력 해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 기자회견 일부)

이는 ‘-다’ 종결체보다는 청자 지향적이지만, ‘해’ 또는 ‘해요’보다는 화자 지향성이 강한 종결형이다(장경현 2010: 81).

끝으로 ‘-다’ 또는 ‘-니니다’ 종결체와는 성격이 다른 구어체 문장으로 알려진 반말 종결체로 ‘-어’, ‘-지’, ‘-군’, ‘-거든’, ‘-니데’ 등이 있다(박재연 1998). 이러한 종결형들은 음성 텍스트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입말로 수행되어야 하는 구어 텍스트인 희곡에서 발췌된 아래 텍스트는 이를 보여준다.

(예 10)

주혜 목각을 사겠다는 분이 오셨어요. ……
창배 ……?
주혜 만나시겠어요, 선생님?
창배 이 목각은 팔지 않겠어. ……
주혜 꼭 사셔야 되겠대요…… (김상열 희곡집, 엄마의 손)

반말체 ‘-어’는 ‘-요’가 통합된 종결부와 구어 텍스트에서 널리 쓰이는 형태이다. 반말체 ‘-어’와 ‘-요’가 통합된 ‘-어요’ 종결부는 청자 대우법 등급에서 ‘해’ 체와 ‘해요’ 체로 구별된다. 후자는 존댓말의 개념으로 언중들에게 인식되기도 하며 실제로 화자와 청자가 연령이나 지위가 다를 경우에 반말체 ‘-어’와 ‘-어요’는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⁵⁾. 아래의 예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로 이를 보여준다.

5) 장경현(2010: 90)은 ‘-어’와 ‘-어요’ 종결부 모두를 반말체로 통합하여 분류한다. 그리고 대우법에 의한 차이를 문체적 특성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다’, ‘-니니다’ 종결체와 구분하는 관점에서는 ‘해’와 ‘해요’체를 구어체적 성격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할

(예 11)

창배 진호 ……!?
 진호 네 (목이 맨다.) 아버지……
 창배 (미소와 아픔) 네가 왔구나……
 방문을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알았어……
 네가 걸어서 앞에 오고 말았구나……
 찬호 용서하시겠어요……? (김상열 희곡집, 엄마의 손)

이와 같이 ‘-어’와 ‘-어요’ 종결부는 면대면의 대화에서도 쓰이는 입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문어체 기본 문체인 ‘-다’나 격식성의 문어체나 구어체에서 공히 쓰이는 ‘-습니다’ 보다는 청자 지향성이 높으며 친밀성을 가진 문장 종결부이다. 청자를 중심으로 한 연계성 그리고 청자 지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다’에서 ‘-습니다’ 그리고 ‘-어(요)’ 종결체로 갈수록 청자 지향성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보인다.

3.2 번역 3종의 문장 종결부 문체 분석

우리는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 텍스트 3종의 종결어미에 대한 논의를 청자 ‘단절성/연계성’과 ‘화자 중심/청자 중심’의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3.2.1 이덕형 번역본 종결어미

이덕형의 종결어미는 기본적으로 ‘-다’ 종결체를 사용하고 있다.⁶⁾ ‘-다’ 체

수 있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의 연령이나 지위에 의해 종결부가 선택되어야 하는 번역의 상황에서는 이를 ‘-어’와 ‘-요’가 통합된 ‘-어요’ 종결부는 대우법에서 그 쓰임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우리는 언중의 판단에 근거 ‘-어’ 종결부만을 반말체로 부를 것이다.

6) 『호밀밭의 파수꾼』의 1장에서 가상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홀든의 서술에 쓰인 종결형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각 번역본에 사용된 종결형)

는 기본적으로 화자 지향성이 강한 문체이다(장경현 2010: 70). 화자 지향성이 강한 ‘-다’ 종결체는 음성 텍스트가 아닌 논문이나 신문 등의 문체 텍스트에서 쓰이는 기본 문체이다. 한국어 번역 텍스트 『호밀밭의 파수꾼』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다’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예 12)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구차하게 보냈으며,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는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따위일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퍼필드 식의 시시껄렁한 이야기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 체는 청자 대우법이 혼합될 수 없는 종결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자 지향성이 낮다. 아래의 텍스트에서는 ‘-다’ 형 외에 ‘-라’ 형이 쓰이고 있다.

(예 13)

내가 펜시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펜시 고등학교는 펜실베이니아 주 어거스타운에 있는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광고란에서라도 보았을 것이다. 수많은 잡지에다 광고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 광고에는 항상 말쑥한 청년이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진이 실린다. 마치 펜시 고등학교에선 언제나 폴로 경기를 시키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작전이리라.

번역본	종결형
이덕형[TT1]	‘-다’ ‘-까’ ‘-리라’
윤용성[TT2]	‘-구나’ ‘-단다’ ‘-거든’ ‘-이야’ ‘-지’ ‘-라구’ ‘-어’ ‘-더군’ ‘-르까’ ‘-던가’ ‘-봐’ ‘-란다’ ‘-걸’ ‘-니까’ ‘-군’ ‘-고’ ‘-는데’
김옥동·염경숙[TT3]	‘-비니다’ ‘-지요’ ‘-거든요’ ‘-있죠’ ‘-다고요’ ‘-테요’ ‘-니까요’ ‘-이죠’ ‘-냐고요’ ‘-만요’ ‘-어요’

위에서 쓰인 ‘-라’ 형은 의고형 문체로 현대적 텍스트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데 일반적으로 ‘-다’ 체와 같이 쓰여 화자 지향성이 강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장경현 2010: 79).⁷⁾

기본적으로 이덕형의 종결문체는 ‘-다’ 체이지만, 드물게 반말체의 종결형이 쓰이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예 15)

갑자기 아무리 먼 곳이건, 아무리 높은 곳이건 걸어서 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파트의 방까지 자주 걸어서 올라가곤 했다. 12층이었는데도.

(예 16)

이야기는 몇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결국 나는 그 사기꾼을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방을 나와버리겠지. 그리고는 세면장에 가서 몰래 담배를 피우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층 험상궂게 보이게끔 연기할 것이다.

(예 15)에서 쓰인 TT1의 ‘-는데’ 종결형은 연결어미의 변형으로 선행절의 종속 정보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반말체로 선행 발화에 나온 정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예 16)의 ‘-지’ 종결형도 반말체 구어 표현이다. 위의 텍스트에서는 화자 홀든이 자신의 성격에 비추어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덕형 번역 텍스트에서는 비록 간간히 화자의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여야 하는 경우, 반말체의 구어 표현이 쓰이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자 텍스트의 기본 문체인 ‘-다’ 종결형이 중심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화자

7) 장경현(2010: 78-79)에서 쓰인 예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이들은 말한다. 우리 소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 (...중략...) 김준호라는 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손심심이라는 여자를 묶어서 한 묶음으로 글을 쓸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시라.

지향적, 단절성 성향의 종결부로 『호밀밭의 파수꾼』의 스카즈 내러티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1인칭 화자 홀든의 구술적 내러티브와 가상의 청자에게 친밀하게 이야기 하는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1인칭 주인공 홀든이 가상의 청자 ‘you’를 대상으로 친밀하게 발화함으로써 독자가 가상의 청자와 동일시하는 원천 텍스트의 문체적 효과를 TT1의 화자 중심적 문자 텍스트의 종결체 ‘-다’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3.2.2 운용성 번역본 종결어미

TT2의 운용성 목표 텍스트는 화자 홀든의 목소리를 반말 종결형 ‘-어’, ‘-지’, ‘-는데’, ‘-거든’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우법으로는 연령, 지위 관계에서 청자가 아랫사람이거나 동년배 청자를 대상으로 쓰이는 ‘해’ 체를 쓰고 있다. 장경현(2010)에 따르면, 이는 기본적으로 청자 중심적이며 입말의 구어 표현이다. 이러한 종결어미는 물리적으로 청자가 화자와 면대면으로 있지 않더라도 청자 단절성보다는 청자 연계성의 문체 효과를 갖는다. TT1에 상응하는 TT2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운용성 번역 텍스트의 문장 종결부 문체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자.

*The Catcher in the Rye*의 첫 시작은 홀든이 “If you really want to hear about it, ……”라고 말하며 시작한다. 독자를 청자로 초대하여 홀든은 이야기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명사 ‘it’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청자와 화자 사이에 공유 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 듯 말한다. 문자 텍스트의 기본형인 ‘-다’ 종결체가 쓰인 이덕형의 TT1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이라는 문자 텍스트의 정형적 표현을 쓰는 반면, 아래의 운용성 목표텍스트는 음성적 표현인 비격식적 줄임말 ‘애길’을 쓰고 있다.

(예 17)

만일 내가 정말 애길 듣고 싶어 한다면 말이야, 우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하찮은 유년 시절은 어떤 꼴이었는데,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는 뭘 하고 살았는지 어찌고저찌고 하는, 말하자면 데이비드 코퍼 필드 식의 시시결렁한 것부터 들으려고 할지 모르겠구나.

뿐만 아니라 구어적 청자 지시 표현 ‘네’를 씌으로써 17세의 고등학교 중퇴자와 청자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홀든이 가상의 청자에게 친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인다. 위에서 쓰인 종결형 ‘-구나’는 ‘해’ 체보다 대우법에서 낮은 ‘해라’ 체로 청자 지향성이 매우 강한 음성적 표현이다.⁸⁾

이러한 친밀감과 청자 지향성이 높은 ‘-구나’는 아래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리고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어 뽐내는 듯한 태도를 전달하는 종결형 ‘-야’ 또한 매우 청자 지향적인 반말체 음성 표현이다.

(예 18)

어느 순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걸어서 가고 싶은 때가 있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자주 집까지 걸어서 올라갔다구. 아파트의 12층까지.

윤용성의 (예18)과 아래에 재인용된 이덕형의 TT1 (예15)를 비교하면 윤용성의 ‘해’ 체 또는 ‘해라’ 체의 음성 텍스트적 구술 서사가 문자 텍스트의 기본 종결체인 ‘-다’에 비해 청자 지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예 15)

갑자기 아무리 먼 곳이건, 아무리 높은 곳이건 걸어서 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파트의 방까지 자주 걸어서 올라가곤 했다. 12층이었는데도.

입말 반말체의 종결형들은 ‘-아’, ‘-지’, ‘-거든’, ‘-군’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종결형들은 윤용성의 TT2에서 모두 쉽게 발견된다. 아래의 예들은 윤용성의 TT2를 이덕형의 TT1과 비교할 때 윤용성의 번역텍스트가 입말의 구술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8) 뿐만 아니라 ‘-구나’는 친밀감도 높은 표현으로 (장경현 2010: 179), 몸이 아픈 친구에서 ‘참 아프겠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아프겠다’, ‘참 아프겠습니다’, 또는 ‘참 아프겠네요’ 보다 더 청자 지향적이다.

(예 19)

ST: It was a false alarm, though.

TT1: 그러나 내 예상은 빗나갔다.

TT2: 그렇지만 내 예상은 멋지게 빗나갔어.

(예 20)

ST: …… I get bored sometimes when people tell me to act my age.

TT1: 하긴 나잇값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하품만 나오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TT2: 그저 나이 값을 하라고 어른들이 말하면 따분해 죽을 지경이지.

(예 21)

ST: I mean he was all stooped over, and he had terrible posture, ……

TT1: 허리가 굽을 대로 굽어서 서 있는 자세를 보면 한심해 보였다.

TT2: 그렇지 않겠어? 허리는 굽을 대로 굽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

이와 같이 윤용성의 번역텍스트는 ‘해’ 체의 반말체를 홀든 발화의 종결형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종결형들은 면대면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청자와의 연계성이 높으며 또한 화자 지향적이 아니라 청자 지향적 발화로 쓰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해’ 체 반말체 발화 종결형은 홀든이 동년배를 가상 청자에게 이야기 하는 스카즈 내러티브인 *The Catcher in the Rye*의 구술 내러티브가 가진 문체적 효과를 잘 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3.2.3 김옥동·염경숙 번역본 종결어미

끝으로 김옥동·염경숙의 번역텍스트에서 쓰인 문장 종결형들의 특징을 보기로 하자. (예 22)가 보여주듯이 김옥동·염경숙의 번역텍스트의 기본 종결형은 두 가지로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브니다’ 종결형이며 다른 하나는 대우법 ‘해요’ 체이다.⁹⁾

9) 한국어의 청자대우 격식은 5등급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1등급의 ‘합쇼’ 체가 가장 높으며 6등급의 ‘해라’ 체가 가장 낮다. 아래의 표는 한미선(2012:15)에서 인용된 것이다.

(예 22)

정말로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 거지같은 유년 시절이 어땠으며,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따위를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시시콜콜하게 내력이나 캐는 데이비드 코퍼필드식 얘기들 말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이야기는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3.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옥동·염경숙 번역텍스트에서 쓰인 ‘해요’ 체는 운용성에서 쓰인 ‘해’ 체와 같이 청자 연계성과 청자 지향적 입말투의 종결형이다. 이는 운용성에서 쓰인 ‘해’ 체의 반말 종결형등과 같이 홀든의 청자 지향적 구술적 내러티브의 특성을 살리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니다’ 체는 ‘-지’, ‘-군’, ‘-어’ 등의 반말체보다는 더 문어적이며 화자 중심적이다.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TT2의 운용성에서 쓰인 ‘해’ 체의 반말 종결형들은 음성 텍스트에서 쓰이는 청자 중심적 구술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TT3의 김옥동·염경숙에서 쓰인 ‘-니다’ 종결체는 문자 텍스트에서 주로 쓰이는 문장 종결부로 ‘-구’, ‘-야’ 등의 음성 텍스트 종결형 보다는 청자 중심적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예 23)

ST: Grand. There's a word I really hate. It's a phony. I could puke every time I hear it.

TT2: ‘홀룡하다구! 이거야말로 내가 질색하는 말이야. 그 말은 엉터리라 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나.

TT3: ‘홀룡하다.’ — 나는 이 단어를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사기인거지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납니다.

게다가 TT3에서는 문자 텍스트의 일부인 문장부호 ‘하이픈’이 쓰이고 있다. 이는 텍스트의 구술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TT2에서는 전술한 표현을 지칭하며 ‘이거야말로’라는 입말의 표현이 사용되어 구술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등급	1	2	3	4	5	6
종결어미	합쇼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TT3에서는 전술한 표현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이라고 글말 표현이 쓰이고 있어 문자 텍스트의 기본 문체 ‘-디니다’와 함께 구술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비록 ‘사기인거지요’라는 ‘해요’ 체의 반말형 ‘-지’가 쓰이고는 있지만, TT2에서 사용된 비속어 ‘엉터리라구’ 보다는 글말이며 화자 지향적 격식 표현이 쓰이고 있다. 또한 비록 TT3에서는 일상대화에서 쓰이는 ‘해요’ 체가 쓰이고는 있지만 ‘해요’ 체는 대우법에서 높임말이며 혼용되어 함께 쓰이는 ‘-디니다’ 종결형도 경어체로 홀든의 저속한 언어 사용에 부합되지 않는다.¹⁰⁾ 또한 홀든의 “잠재적 청중은 어른이기보다는 그의 동년배”로 보이기 때문에 TT3의 높임말의 종결형 쓰임은 적절하지 않다.

4. 맺음말

소설 *The Catcher in the Rye*의 일인칭 서술자 홀든은 가상의 청자에게 자기 독백식의 이야기를 한다. 비록 면대면의 대화는 아니지만 동년배의 가상의 청자에게 친밀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면대면의 대화처럼 구술성이 높다. 한국어의 문장 종결부는 화자의 성, 연령, 교육정도, 지역배경 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관계, 텍스트의 장르 등에 따라 달리 쓰인다. 따라서 *The Catcher in the Rye*의 한국어 번역자는 소설에 나타난 홀든의 나이, 교육정도, 가상의 청자, 소설에서 쓰는 홀든의 언어 등을 고려하여 소설의 음성적 구술성을 반영하는 문장 종결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서술자 홀든이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이며 그의 잠재적 청자는 동년배로 판단되며 속어와 비어 등 그가 쓰는 입말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윤용성의 번역텍스

10) ‘해’와 ‘해요’ 체는 일상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구어체 형식(이정복 1998:339)이다. 그러나 ‘해’ 체가 화자보다 지위가 낮거나 같은 지위의 청자에게 널리 쓰이는 형식이라면, ‘해요’ 체는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형식으로 두 형태는 용법상의 차이를 가진다. 장경현(2010)은 ‘해(요)’ 이 두 형식을 통합하여 반말 종결체로 부르며 두 가지 종결어미 모두 청자 지향적으로 보고 문체적 차이를 두지 않는다. 박나리(2000: 324)는 높임의 ‘-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 격식, 비격식체로 구분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해’와 ‘해요’ 체를 청자 대우와 청자 반말로 구분하고자 한다.

트에서 쓰인 ‘-지’, ‘-어’, ‘-구나’, ‘-거든’ 등의 ‘해’ 체 반말형이 일인칭 서술자 홀든의 말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장 종결부임을 주장하였다.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은 이덕형의 ‘-다’ 종결어미는 홀든의 “내적 독백의 어감”이 가진 이 “작품의 고유한 서술방식의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평가이다.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다’ 종결체는 문자 텍스트의 기본 문체로 화자 지향성이 높으며 입말보다는 글말투로 홀든의 청자 지향적 서술 방식을 반영하는 데 적절하지 못함을 보였다. 그러나 번역평가사업단은 윤용성 번역 텍스트에서 쓰인 대화체 종결어미에 대해 “‘내적 독백’보다는 ‘이야기하기’(storytelling)에 더 적절한 ‘-단다’ ‘-구나’ 식의 어투”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3.2에서 보았듯이, 홀든의 서술이 가상의 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홀든의 이야기를 내적 독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홀든의 서술 방식은 2인칭 청자 ‘you’에게 친밀한 어투로 말하는 스카즈 내러티브이다. 따라서 동년배의 청자에게 친밀하게 이야기 하는 서술자 홀든의 어투는 청자 지향적이어야 하며 청자 연계성이 가장 높은 ‘-구나’ ‘-지’ ‘-는데’ 등의 ‘해’ 체 반말형이어야 한다. 한국어 종결어미는 이와 같이 화자 또는 청자 중심의 연계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을 번역할 때, 화자와 청자와의 나이, 관계, 친밀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종결어미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종결어미는 스카즈 내러티브의 구술성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문체이지만 구술성은 속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주인공 홀든의 스카즈 내러티브의 구술성을 높이는 장치는 빈번한 속어의 쓰임이다. 룯지(Lodge 1995: 19)에 따르면, 홀든의 발화에서 쓰이는 ‘jerk’, ‘crazy’, ‘bored as hell’, ‘phoney’, ‘big deal’, ‘killed me’, ‘old as hell’ 등의 속어(slang)는 홀든의 서술 스타일을 글(writing)이 아니라 말(speech)처럼 들리게 하는 10대가 쓰는 말의 특성이다. 즉,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홀든의 비속어 사용은 문자 텍스트가 아닌 음성 텍스트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는 윤용성의 TT2가 문장의 종결형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어 번역을 보여주고 있다.

(예 24)

ST: I still had my arms folded and all. God, what a jerk I was.TT1: 나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정말 나는 바보였다.TT2: 그대로 팔짱을 낀 채 말야. 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멍청이였어.TT3: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말입니다. 참 나도 어지간히 숙맥이었지요.

원천 텍스트의 속어 ‘jerk’가 TT1에서는 ‘바보’, TT2에서는 ‘멍청이’, 그리고 TT3에서는 ‘숙맥’으로 표현되고 있다. 홀든의 저속한 언어(low language)를 잘 반영하는 표현은 ‘멍청이’이다. 각각의 표현은 각각의 목표 텍스트에서 쓰인 종결형의 특성과 호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덕형에서 쓰인 TT1의 ‘-다’는 문자 텍스트의 기본 문체로 ‘멍청이’ 보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 ‘바보’를 쓰고 있다. 또한 문자 텍스트의 기본 문체인 ‘-습니다’가 쓰인 TT3에서도 한자 문어 표현인 ‘숙맥’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해’ 체의 구술적 반말형이 쓰인 TT2에서는 비속어 ‘멍청이’가 쓰이고 있어 홀든의 음성적 구술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율용성의 TT2는 TT1이나 TT3보다 스카즈 내러티브의 구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비어나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스카즈 내러티브로서의 원천 텍스트의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¹¹⁾ 결국 일상대화에서 사용되는 ‘해’ 체의 반말체 종결형들이 쓰인 율용성의 번역 텍스트가 구술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논의한 3종의 번역본 가운데 홀든의 구술적 내러티브를 가장 잘 반영하는 구술성이 가장 높은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문학번역에서 번역자는 원천 텍스트의 서술 방식이 어떤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천 텍스트 소설의 서술자의 서술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체선택을

11) 원천텍스트에서 속어가 아닌 일반 어휘의 번역의 경우에도 율용성의 TT2가 다른 번역텍스트의 경우 보다 더 일상적 상투어를 쓰고 있다. 아래의 경우가 이를 보여준다.

ST: I was lucky.

TT1: 나는 운이 좋았다.

TT2: 나는 재수가 좋았어.

TT3: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김순미(2010: 138)는 번역텍스트 『호밀밭의 파수꾼』에 쓰인 비속어와 관련하여 ‘해’체가 쓰인 율용성 번역텍스트에서 “비속어, 관용어구 사용 빈도도 훨씬 높(음)”을 보이고 있다.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10) 「문학 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59.
- 박나리 (2000) 「국어 평서문 종결어미의 서법의미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18: 321-46.
- 박재연 (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파주: 창비.
- 이정복 (1998) 「상대경어법」, 서태룡 외(편집) 『문법 연구와 자료』 329-58, 서울: 태학사.
- 이중희 (2004) 「국어 종결 어미의 의미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경현 (2010)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서울: 역락.
- 한미선 (2012) 「금기 비속어의 영-한 번역연구: 격식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akhtin, Mikhail (1984) *Problems in Dostoevsky's Poetics* (Caryl Emerson,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ludernik, Monika (1993) 'Second Person Fiction: Narrative You as Addressee and/or Protagonist', *Arbeiten aus Anglistik und Amerikanistik* 18: 217-47.
- Jahn, Manfred (2005) *Narratology: A Guide to the Theory of Narrative*, English Department: University of Cologne.
- Lodge, David (1992) *The Art of Fiction*, New York: Viking Penguin.
- Mackenzie, Craig (1999) *The Oral-style South African Short Story in English*, Amsterdam-Atlanta: Rodopi.
- Schmid, Wolf (2010) *Narratology: An Introduction*(Alexander Starritt, Trans.), Berlin & New York: De Gruyter.
- Walker, Jill (2000) 'Do You Think You're Part of This?', In Markku Eskelinen

& Raine Koskimaa (eds), *Cybertext Yearbook*, Jyväskyl University, 34-51.

<분석 텍스트>

Salinger, J. D. 1991. *The Catcher in the Rye*. London: Penguin Books.

김옥동 · 엄경숙 옮김. 2005.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현암사.

이덕형 옮김. 1998.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문예출판사.

윤용성 옮김. 2005.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문학사상사.

[Abstract]

**An Analysis of three types of sentence-endings in *skaz*
narrative Korean translations:
The Case of *The Catcher in the Rye***

Cho, Euiyon · Cho, Seongeun
(Dongguk University_Seoul)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at the Korean sentence endings used in translating the *skaz* novel, *The Catcher in the Rye* by J. Salinger must be those plain endings such as '-ci', '-e', '-kuna', and '-ntey' called 'panmalchey' (friendly style without second person honorific '-yo'). The novel whose narrative style is known as *skaz* (to tell) narrative (Fludernik 1993, Jahn 2005 Lodge 1992) has the first person narrator Holden and the second person listener 'you' whose referent is not rigid nor designated in the novel: Holden tells his story to the listener as if he or she is a close friend of his with colloquial speech containing even slangs such as 'jerk', 'phoney', 'bored/old as hell', and 'big deal.' In order to show this, we have examined three translation texts recommended as those reliable translated texts by English Literature Translation Evaluation Committee (2005). However, they have different sentence endings for Holden's narration: TT1 mainly uses the plain form '-ta' commonly used in a newspaper or research papers; TT2 uses various forms of 'panmalchey' without the second person honorific form '-yo' mentioned in the above; TT3 on the other hand uses two main types of endings '-pnita' and 'panmalchey' with '-yo.' The 'panmalchey' sentence endings in TT2, known as the hearer oriented speech forms, have the highest orality used in causal everyday conversation between friends. Since Holden's narration is characterized as low language casual speech between teenagers, the sentence endings used in

TT2 is high in orality and functionally appropriate to Holden's *skaz* narrative style.

▶ Key words: *skaz* narrative, orality, Korean sentence-endings, speaker/hearer oriented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choey@dongguk.edu

관심 분야: 화용론, 번역학

조성은

동국대학교 영어번역학전공 박사과정

cholyou@nate.com

관심 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28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